



# 왜 점성술은 사이비과학인가?

---

포퍼, 쿤, 태거드의 구획 기준





## 과학자 192인의 성명서(1975년)

- .....
- 마술적 세계관에 기인
- 물리적 기초의 부재
- 불순한 목적





## 반증불가능성

.....

점성가들은 ... 해석과 예언을 아주 모호하게 해서, 그 이론과 예언이 보다 정확했다면 논박되었을 그 어떠한 것도 설명해 넘길 수 있었다. 그들은 반증을 피하기 위해서 그 이론의 시험 가능성을 파기해 버렸다. 모호하게 예측함으로써 그 예측들이 거의 실패할 수 없도록, 따라서 논박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점쟁이들의 전형적인 술책이다,



## 퍼즐 풀이 활동의 부재

.....

- ▶ 패러다임의 부재 : 실행을 위한 규칙은 있지만, 실패의 재발을 막을 만한 도구를 제공하지 않음.
- ▶ 프톨레마이오스 천문학 : 패러다임이 제공한 도구들을 이용해 문제(퍼즐)를 풀어나가며 개선됨
- ▶ 점성술 : 특정한 실패가 연구를 위한 퍼즐을 제공하진 않음. 즉 아무리 재능있는 사람도 그러한 실패를 점성술의 전통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적인 시도로 활용할 수 없었음.
- ▶ 대부분의 실패는 점성술사의 지식과 능력과 책임의 범위를 넘어선 것들이기에, 점성술사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퍼즐로 간주될 수 없음.





## 이론, 공동체, 역사적 맥락

.....

- ▶ 과학이길 의도한 이론은 다음의 경우에만 사이버과학이다.
- ▶ 오랜기간 동안 대안이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진보적이며, 많은 미해결 문제에 직면했을 뿐 아니라,
- ▶ 해당 공동체가 문제 해결을 위해 이론을 발전시키려는 시도를 거의 하지 않으며, 이론을 다른 이론과 비교 평가하려는 시도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고, 입증과 반입증을 고려하는 데 선택적이다.
- ▶ 쿤이나 라카토슈와의 차이는?
- ▶ 이 기준에 따른다면, 점성술은 언제부터 사이버과학이 되었을까?